중·고생 흡연율 왜 높나 했더니…

담배, 인터넷서 쉽게 산다

주민증 위·변조해 구매 … 술집 출입까지

"○○○담배 라이트 2갑, 맨솔 1갑 등 3갑 직거래로 1만원에 삽니다. 광주에 사는 분은 쪽지 남겨주세요."

"담배삽니다. ○○○담배 맨솔이면 좋아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여기에서 구입하네요. 파실 분은 댓글 'ㄱㄱ'('go go'를 의미하는 인터넷 신조어)."

회원 수가 180만명이 넘는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까페에 최근 올라온 글들이다. 글쓴이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곧장 "쪽지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담배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다.

심지어 그 아래에는 "저도 삽니다", "담배 삽니다. 010-×××-××××. 문자주세요"라며 담배 구매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 방식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위조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흡연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과거 주변의 성인에게 부탁하거나 동네 소매점에서 애교를 섞어가며 담배를 사는 방식은 이미 '옛일'이 된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까페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담배 한 갑당 500~1500원의 '웃돈'까지 줘가며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사고 있다.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를 비웃듯 인터넷 까페에는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들과 판매자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최근 1주일간은 평소보다 담배 구매와 관련한 글들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광주의 경우 특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유행 처럼 번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주시 북구의 모 고교의 경우 3학년 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담배 구매는 물론, 술집 출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모 고교 3년 김모(19)군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두 번째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참고서 표지의 바코드 필름에 찍혀있는 숫자를 떼서 주민등록증에 붙이면 성인의 주민등록증이 된다"며 "마무리로 문구점에서 파는 손코팅 필름을 주민등록증에 덧씌우면 더욱 감쪽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광주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변조 사실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재 광주·전남의 중·고교생 흡연율은 각각 11.1%, 13.7%에 달한다. 특히 광주·전남의 남학생 흡연율은 각각 15.3%, 19.2%로 나타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무안경찰서 간부 오락실 동업 의혹

운영비 빌려주고 배당금

무안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고향 후배가 운영하던 사행성 오락실에 운영비를 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불법 오락실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소속 박모(55) 경위는 지난 5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42)씨가 5년 전 빌려간 2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2005년 최씨 지인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최씨는 지인인 강모(42)씨가 서울경찰청에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되자 박 경위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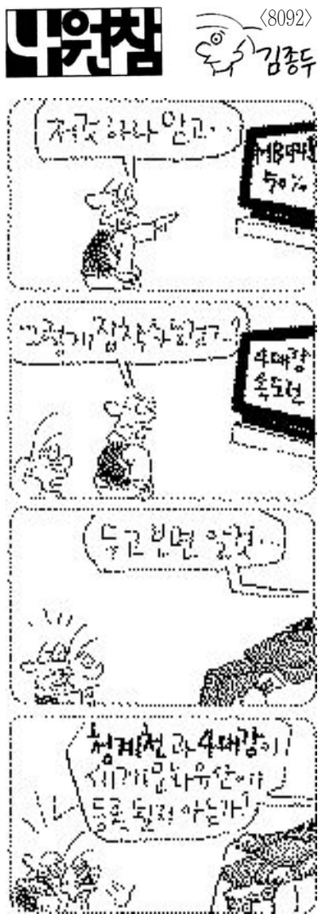
하지만 최씨는 이 돈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PC 오락실의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박 경위가 오락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씨는 또 박 경위로부터 돈을 빌린 뒤 배당금 명목으로 2005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씨가 운영하던 오락실은 당시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개업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 경위에게) 돈을 빌릴 당시 1500만원은 오락실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000만원만 강씨의 변호사 비용을 댔다"며 "(박 경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배당금도 10여 차례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경위는 "고향 후배인 최씨의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줬을 뿐, 오락실을 동업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오락실에 가본 적도 없으며, 돈을 빌려준 한 달 뒤 일부 상환 명목으로 100만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2010인분 연쌈밥 비비기 5일 오후 '2010 무안 대한민국연산업축제'의 개막행사인 '2010인분 연쌈밥나눔잔치'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름 3m의 초대형 그릇에 담긴 무안 유기농 쌀밥과 친환경 농산물 재료를 비비고 있다. 이 축제는 오는 8일까지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 /무안=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음주단속 청탁 거절 앙갚음

차 브레이크에 본드칠 광양 현직 경찰관 입건

음주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동료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 본드칠을 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5일 주차장에 세워진 동료 경찰의 차량에 두 차례에 걸쳐 본드칠을 한 광양경찰 소속 H(55)경위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경위는 지난 1일 동료인 K(46)경위의 차량 외부 제동장치와 연료주입구, 보닛 등에 본드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경위의 범행은 지난 6월 자신의 차량 차창과 보닛 등에 본드가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한 K경위가 범인을 밝히기 위해 최근 차량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에 찍히면서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H경위는 지난 5월 음주단속 과정에서 K(46) 경위가 자신의 지인을 적발한 데 불만을 품고 K경위의 차량에 두 차례에 걸쳐 본드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H경위는 "친한 동료여서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버스기사 식중독 식당서 또 식중독 6명 의심 환자

지난달 28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시내버스 기사 20여명이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사흘 뒤 또 다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5일 광주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전북 고창에서 온 관광객 6명이 지난 1일 밤 9시께 무등산 증심사 종점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집단으로 복통·설사·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전주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은 보리밥·도토리묵·파전 등을 먹은 뒤 다음날 새벽 1시에 복통 및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보건소는 이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광주 모 대학병원 직원 8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광주동구보건소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변제 불가능할 만큼 많은 빚 졌다면

"고소득 의사도 파산 인정"

광주지법

생계비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라도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빚을 졌다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5일 정형외과 의사 이모(40)씨가 낸 '파산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빚이 31억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나 소득으로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일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비와 장비 투자비 등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가 31억원에 이르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이씨는 '월급 423만원 가운데 생계비 등을 뺀 매월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해 원금의 12%를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채권자들로부터 거부됐다.

이에 이씨는 2008년 10월 광주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채무가 30억원이 넘더라도 월 423만원의 급여소득을 통해 계속적인 변제가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한 점과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를 감안해 원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박 음주 몸싸움 실종 선원 2명 숨진 채 발견

정박 중인 선박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다 바다에 빠져 실종된 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9시20분께 신안군 임자면 선착장에 인근 해상에서 문모(39)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해경 122구조대가 발견했다. 앞서 새벽 2시45분께에는 인근 해상에서 이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30분께 이곳에 정박했던 18t급 M호에서 다른 선원과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모두 4명의 선원이 1.8ℓ 들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교육장 공모 '후폭풍'

후보 추천인사가 심사·특정단체 배제 항의도

심사위원 신원 사전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목포교육장 공모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장 후보를 추천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는가 하면, 특정단체가 심사위원에서 배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교육청은 지난 2일 실시한 목포교육장 심사에서 교육장 후보를 추천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일자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배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당초 교육장 공모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으로의 위촉을 제한하고 심사행위 자체를 무효화토록 규정했다.

이번 교육장 심사위원으로는 도교육청에서 당연직 2명과 인력 풀 가운데 추첨한 3명,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 중 6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목포교육장 심사위원의 경우 전교조와 목포교육연대 등 진보적 성향 단체 인사들이 5~6명이 포함된 반면 학부모단체는 배제됐다. 이와 관련 목포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장만채 교육감을 방문, 심사위에서 완전 배제된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블루스 추다 엉덩이에 손 '슬쩍'

쌍나팔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올린 4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1)씨는 지난 4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날 처음 만난 A(여·24)씨와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가 A씨의 신고로 연행.

○…경찰에서 박씨는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간 것이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